

대학도서관에서의 해외전자정보 라이선싱

A Study on Licensing of the Electronic Resource Collections in Korean Universities

한 헤 영*

Hye-Young Han

차 례

- | | |
|------------|--------------|
| 1. 서 문 | 4. 전자정보 라이선싱 |
| 2. 라이선싱 현안 | 5. 결론 |
| 3. 전자정보 선정 | • 참고문헌 |

초 록

인쇄환경에서의 도서관은 장서 구입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무제한 접근과 영구 이용을 지원한다. 이와 달리 전자환경에서의 도서관은 대부분의 전자정보 서비스를 일정기간 동안만 접속할 수 있고 특정 조건하에 이용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전자정보의 접속은 라이선스 취득을 통하여 가능하며 전자정보의 라이선싱이란 전자정보를 제공하는 출판사 혹은 정보제공자인 라이선서(licensor)와 전자자원을 구입하려는 도서관인 라이선시 licensee)간 협상한 내용에 상호 동의하여 계약하는 절차라 할 수 있다. 도서관에서는 이제 필요한 전자정보를 확충하기 위하여 구입(purchasing)하는 것이 아닌 라이선싱(licensing)을 해야 한다.

본 논고에서는 라이선싱 관련 현안들을 살펴보고 전자정보의 선정 기준과 라이선싱 관련 원칙 및 고려사항에 대하여 문헌을 중심으로 조사한다. 본 논고에서 정리하여 제시한 사항들이 국내 대학도서관의 해외 전자정보 담당자 업무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키 워 드

해외전자정보, 전자정보 라이선스, 라이선싱, 전자정보 선정 기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화실 연구위원
(Senior Researcher, KERIS, hyhan@keris.or.kr)
• 논문접수일자: 2004년 6월 2일
• 게재확정일자: 2004년 6월 17일

ABSTRACT

In the print information world, purchasing books in a library includes rights both to own them and to access to them. In an information world, access to electronic resources often takes place within the confines of a license that defines appropriate use over a specified period of time. Most of these electronic resources are governed by license agreements.

This paper describes recent licensing issues which remain unresolved in the area of business model, archive, and fair use and also investigates formal evaluation criteria for developing electronic resources in a library. This study provides licensing principles and considerations for managing the licensing of electronic resources.

KEYWORDS

license, electronic resources, licensing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컴퓨터 기술과 고도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도서관이 제공하는 장서의 형태와 접근 방법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전통적으로 도서관이 수집하던 장서는 수집과 동시에 도서관에 소장되며 물리적인 형태를 가지고 폐기 전까지 관리가 필요한 형태로서 도서관의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도서관내 소장된 물리적인 자료의 접근은 이용자가 필요한 때 열람 혹은 대출하여 이용하였다. 하지만 최근에 등장한 전자정보는 전통적인 도서관 장서와 다른 전자적 형태로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접근하여 일정 구독 기간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즉, 제한된

네트워크상의 범위내 있는 이용자만이 접속하여 설정된 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다.

전통적 도서관이 인쇄 중심의 장서를 구입하여 소장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면 최근의 도서관은 전자적인 형태의 정보 자원을 라이선싱(licensing)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정보의 라이선싱이란 전자정보를 제공하는 출판사 혹은 정보제공자인 라이선서(licensor)와 전자 자원을 구입하려는 도서관인 라이선시 licensee)간 협상한 내용에 상호 동의하여 계약하는 절차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도서관은 전자정보에 대한 적법한 접근과 이용에 대한 허가권을 얻는 것이다. 즉, 도서관은 필요한 전자정보를 확충하기 위하여 구입(purchasing)하는 것이 아닌 라이선싱

(licensing)을 해야 한다.

이러한 라이선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출판사 혹은 정보제공자와 도서관 간의 계약 내용에 대한 협상과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계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전자정보는 기존의 인쇄자료와 비교할 때 접근과 이용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므로 도서관에서는 개별 전자정보에 대한 선정 절차를 마련하여 유용한 필수 자원을 선정해야 한다.

최근 도서관은 인쇄자료와 함께 전자적 형태의 자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도서관 자료 구입비 중 전자정보에 대한 예산 지출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내 대학도서관의 경우도 해외의 출판사나 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전자정보에 대한 구독 금액과 종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내 학술연구자들의 해외 학술정보 의존도와 전자적 형태의 학술정보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을 감안하면 향후 해외전자정보에 대한 확충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이 전자정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자정보의 선정, 이를 구독하기 위한 계약내용의 검토 및 협상, 그리고 계약 등의 업무가 새로이 요구된다. 하지만 국내 대학도서관은 전자정보 도입에 따른 전반적인 수서 정책과 전자정보의 라이선싱에 필요한 업무 지침이 미비한 실정이다.

본 논고에서는 전자정보 라이선싱과 관련한 현안들을 알아보고 해외의 대학도서관 혹은 국내의 컨소시엄 주관기관이 제시하는 전자정보 선정 기준과 라이선스 원칙을 조사하고자 한

다. 문헌과 적용 사례를 통하여 해외전자정보의 선정과 라이선싱 원칙 및 고려사항을 정리하여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참고자료로서 활용하도록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인쇄 형태 중심의 도서관 장서개발 정책에는 장서 확인(identifying), 선정(selecting), 획득(acquiring), 조직 및 관리(organizing)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며 도서관은 각 단계별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장서개발에 필요한 4 단계는 전자정보에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겠으나 각 단계별 지침은 전자정보의 특성에 맞게 개발되어 업무 수행시 적용하여야 한다. 본 논고에서는 '장서선정'과 '획득' 단계인 '전자정보의 선정'과 '라이선싱' 부분에 한정하여 필요한 지침을 조사하여 제시하고 전자정보의 확인 단계와 조직 및 관리 단계 부분에 대한 내용은 추후 별도의 연구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연구의 내용으로는 해외 대학도서관 혹은 컨소시엄 주관기관이 출판한 문헌을 통하여 라이선싱과 관련한 여러 현안들 중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또한 해외전자정보를 도입하기 위한 선정 기준을 살펴보고 국내외 기관에서 지침으로 제시하거나 실제 적용하고 있는 라이선스 원칙과 고려사항을 조사한다. 조사한 내용의 정리과정에서는 국내 대학이 필요한 사항에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에서는 국

내 대학도서관이 자체 개발한 전자정보 정책의 존재 여부 및 적용사례는 조사하지 못하였으며 추후 본 논고에서 제시한 원칙과 고려사항에 대한 의견 조사를 통하여 국내 대학이 수용 가능한 원칙과 고려사항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전자정보(electronic resources)'에는 색인·초록 데이터베이스와 전문(full text)를 포함하는 전자형태의 데이터베이스, 개별 출판사 혹은 다양한 출판사들의 저널을 모은 전자저널, 그리고 전자책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전자정보는 인터넷 혹은 CD ROM과 같은 유형으로 로컬 시스템을 통하여 원격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2. 라이선싱 현안

기존의 인쇄중심의 장서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유형인 전자정보와 관련한 문제로서 다음 사항들이 주요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2.1 가격모델

색인·초록 데이터베이스와 원문을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는 구독계약 기간동안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접속하여 이용하는 정액제 방식과 검색 혹은 다운로드의 양에 따른 종량제 방식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장서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상품으로서 판매된다. 전자책의 경우도 인쇄형태의 도서와는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판매되며 다양한 구독모델을 제시한다. 하지만 개별 출판사 혹은 다양한 출판사들의 저널을 모은 전자저널의 경우, 기존의 인쇄형태로 구독하는 학술지가 동시에 전자적 형태로 출판되므로 초기에 등장한 구독모델은 대부분 인쇄본 구독료에 전자저널을 열람할 수 있는 접속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print plus' 방식(이하 PP 방식)이다. 이 구독모델은 도서관이 구독중인 인쇄본을 중단하지 않는 조건하에 인쇄저널 구독료를 기반으로 하고 추가 전자저널 구독 비용을 지불하여 구독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PP 방식의 구독모델은 대부분 출판사가 제공하는 전자저널의 전량을 구독하는 패키지 방식의 구독이므로 개별 전자저널의 선정 절차가 필요치 않다. 최근에는 전자저널 구독료가 기본이 되고 별도 비용을 추가하여 인쇄저널을 구독하는 'electronic plus' 방식(EP 방식)으로 전환하는 학술지도 발생하고 있다. 혹은 'electronic only' 방식(EO 방식)이 등장하여 인쇄저널의 구독을 제외한 모델이 등장하였다.

PP 방식이 현재까지는 가장 보편적인 구독모델로서 대다수의 출판사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즉, 출판사는 전자저널이 출현되기 전에 인쇄본 구독을 통하여 취득한 매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추가적인 전자저널의 운영 관리비를 요구하는 것이다. 도서관의 입장에서는 PP 방식을 통하여 기존에 구독하던 핵심 인쇄저널

을 전자적 형태로 접근할 뿐 아니라 패키지내 포함된 다수의 미구독 전자저널을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초기에는 PP방식을 선호하였다. 현재까지 국내 대학에서는 전자저널 구독이 대부분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구독중인 인쇄저널을 구독 취소할 수 없는 라이선스 조항과 연간 평균 7~15%의 학술지 인상률로 인해 최근에는 PP 구독 방식을 탈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또한 지속적인 통계 분석 결과, 패키지 내에 제공되는 전량의 전자저널 중 일부 핵심 전자저널만이 이용되며 그 외의 저널의 활용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인쇄저널의 구독료 부담이 큰 대학에서는 다른 방식으로의 전환을 희망하고 있다.

EP 방식은 전자저널 패키지의 구독료를 기준으로 추가된 인쇄저널 종수에 따라 구독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아직까지 국내에는 도입된 사례는 없다. 이 방식으로 핵심 저널은 인쇄형태로 도서관이 소장함에 따라 전자저널의 구독이 중단된 경우라도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준이 되는 전자저널 패키지의 구독료가 대학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인가가 중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O 방식은 구독계약 기간동안 전자저널만을 구독하므로 구독이 종료된 이후에는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다. 현재 EO 방식으로 제시한 전자저널 패키지의 구독료는 해당 출판사의 인쇄저널을 구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90% 정도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구독

기간이 종료 이후 아카이브용으로 CD ROM에 콘텐츠를 담아서 제공하며 이를 원하는 도서관은 추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다. EO 구독시 인쇄저널 구독료의 90%를 지불하고 추가 백업복사본 금액을 지불해야 하므로 현재까지는 오히려 PP 방식의 구독을 선호하는 대학도서관이 더 많다. 향후 EO방식의 구독료가 인쇄 기반의 90% 이하로 인하되거나 도서관에서 수용 가능한 별도의 구독 모델이 채택된다면 많은 도서관이 선호하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쇄저널 판매가 출판사의 매출의 기준이 되어있는 현재로서는 EO 방식을 통해서도 일정 수준의 매출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향후 구독료의 대폭적인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외 가격모델로서 원하는 주제분야의 패키지 혹은 개별 전자저널만을 선정할 수 있는 모델이 등장함으로써 선정된 학술지의 모든 논문을 접근할 수 있는 모델, 즉 'all you can eat' 방식이 있다. 학술지의 구독을 종량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pay by the drink' 방식을 이용하여 컨소시엄 혹은 개별 도서관은 학술논문 단위로 이용 가능한 블록을 구입하고 건단위로 구독하는 종량제 방식의 구독도 등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구독 방식은 아직까지 보편화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는 개별 저널 혹은 논문 단위의 구독료가 앞에서 설명한 방식보다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특정 분야의 소수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독하는 저널에 적합하므로 향후 대학도서관

에서 분야별 저널별 이용량 분석을 기반으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는 권장 모델이다.

2.2 아카이빙

전자저널을 구독하는 도서관에서의 가장 큰 현안은 '도서관이 자원을 언제든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해야한다' 라는 도서관의 자료 보존과 접근의 취지를 실현하기 어려운 점이다. 한번이라도 구독한 저널을 지속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당해 연도 전자저널 구독료 외 소급분의 전자저널에 대한 별도 구독료를 지불하고 구독하는 방법과 전자저널 구독시 인쇄저널을 동시에 구독하는 방법이 가장 용이한 아카이빙 방법이다.

아직까지 해외 출판사도 도서관이 만족할 만한 아카이빙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몇몇 출판사와 기관에서 다음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OCLC의 ECO(Electronic Collections Online) 서비스는 도서관이 희망하는 전자저널만 선정하여 구독할 수 있으며 한번 구독한 저널은 영구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다. Elsevier의 경우는 특정 주제 분야의 소급분 전자저널만을 별도로 구독하는 패키지를 제시한다. JSTOR는 4년 혹은 그 이전에 출판된 학술지의 소급분만을 구독하는 패키지를 제시하였다. 출판사가 제시하는 아카이빙 해결책은 인쇄저널만을 구독할 때는 없던 추가 금액을 지출해야하므로 대학도서관에게 구독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

고 있다. 제한적인 예산으로 동일 자원에 두 번 지출하는 것이 되므로 도서관에서 아카이브 컨텐츠에 대한 구독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학문이 소급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므로 주제분야에 따른 소급자료의 활용도 분석과 이에 대한 분야별 지원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ePrint Archive는 학술논문이 학술저널에 게재되기 전 이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논문의 저자가 인쇄본을 전자적으로 자체 아카이브(self archive)하는 것이다. ePrint Archives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예로 Cornell University의 물리학 분야의 ePrint Archive의 경우, 약 21만종에서 2007년경에는 38만 5천종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연간 평균 3만 5천종 규모(주 단위 135건)로 증가하고 연간 1천 5백만건을 다운로드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간 2만종의 학술지에 심사를 거친 학술논문 200 만건이 게재될 것으로 추정하며 전자출판의 수량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자가 생산한 논문을 도서관이나 학술연구자가 다시 고액의 구독료를 지불하고 구독하는 현상이 발생하며 학술지 구독료는 연간 증가하므로, 최근에는 연구자의 생산 논문을 무료로 공개하지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즉, 학술논문의 'Open Access' 움직임과 함께 이에 참여하는 학술지 수의 증가로 심사 받은 학술논문을 무료로 온라인 상에서 접근할 수 있는 논문이 증가하고 있다. 한 예로

highwire의 경우, 현재 22종의 무료 저널을 제공하고 있으며 155종의 경우는 소급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 시작한 Washington DC Principle의 경우도 이와 같은 Open Access를 위해 주요 의학 관련 학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주요 저널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소수의 일부 학술지의 무료 제공 혹은 최신호가 제외된 소급분 내용을 제공하므로, 우수 학술논문이 실린 주요 학술지는 결국 고가의 구독료를 지불하고 구독해야 한다. 전자저널의 구독모델은 현재 변화를 거듭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여러 가지가 보완된 보다 발전한 구독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판사는 인쇄저널의 전자저널의 구축과 유지 관리 비용을 지출해야 하므로 도서관이 희망하는 아카이브의 해결책으로서 한번 구독한 저널을 무상으로 영구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3 공정사용(fair use)

저작권법은 특정 저작에 대한 저자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법이나 도서관 이용에서는 몇 가지 예외사항이 적용되고 있다. 이용자들은 이러한 저작권법내의 공정사용에 대한 원칙을 이해하고 특정 저작의 복사에 대한 지침을 안내 받는다. 또한 도서관 간에는 원문복사

서비스도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전자적인 매체에 수록된 특정 저작에 대한 복사는 현재까지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해외의 컨소시엄 주관 기관과 규모가 큰 대학에서 원문복사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하지만 대량 배포와 불법 복제의 우려로 전자적 자원에 대한 원문복사서비스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향후의 전자정보 라이선스 계약내용에는 허용된 이용자가 비상업적인 목적, 교수, 학습, 연구 목적을 위하여 전자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모든 정보의 공정사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즉, 현재의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것과 같이 무제한 열람, 다운로드, 그리고 인쇄가 제공되어야 한다. 전자정보에 대한 인쇄 혹은 전자적 형태의 복사가 허용되어 교수, 학습과 연구 목적을 지원하는 대학도서관간 비상업적인 원문복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도서관에서는 이용자에 의한 전자정보의 오용 혹은 불법 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이용자들에게 안내해야 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JISC는 학습과 연구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원에 대한 전자적 접근을 제공하는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자자원의 접근과 이용에 대하여 'fair dealing'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JCCS 2003). 공정이용(fair dealing)¹⁾은 허용된 이용자가 비상업적인 목적, 교수학습의 목적, 연구목적을 위하여 무제한 브라우

1) 'fair dealing'이란 공정이용 혹은 공정사용에 대한 용어로서 주로 영국 및 유럽권에서 사용됨

징, 다운로드와 인쇄, 전자적 혹은 인쇄형태로 강의교재(course packs)에 활용, 현재의 저작권법이 제공하는 내용을 모두 허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강의교재에 포함된 복사본의 경우는 과정이 종료되면 라이선스에 의해 모두 제거되어 더 이상의 활용이 불가하게 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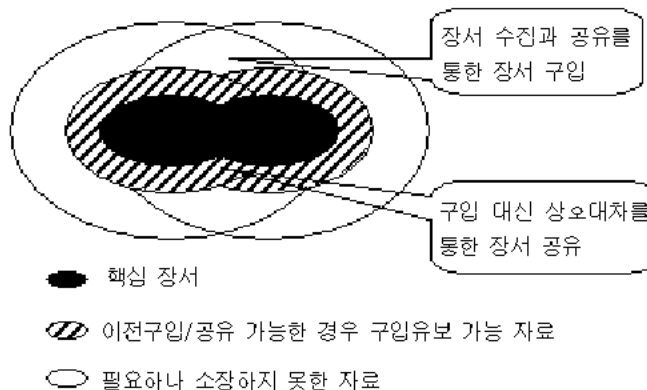
즉, JISC가 제시한 공정이용의 개념에는 기존 인쇄물 중심의 공정사용의 개념에 전자적 형태의 자원 특성을 고려하여 라이선스의 관리까지를 포함한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직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라이선서에 의해 전적으로 수용되지는 않았으므로 지속적인 요구와 협의가 필요하다.

3. 전자정보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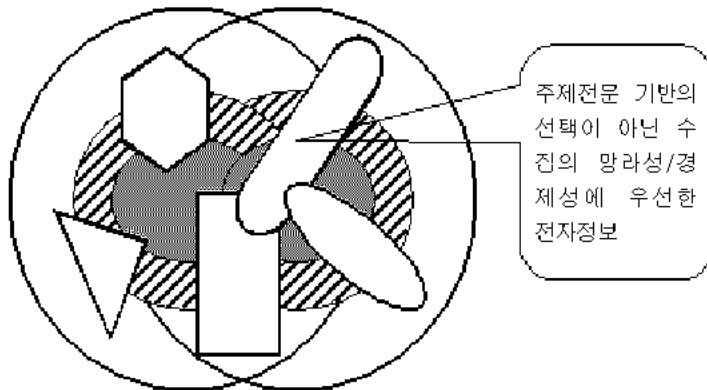
3.1 전자정보 장서관리

인쇄중심의 전통적인 장서관리의 원칙은 Dougherty(1988)에 의하면 핵심장서는 개별

도서관이 구입하며 이전에 구입했거나 다른 도서관과 공유 가능한 장서는 구입을 유보하여 상호협력을 통한 서비스로 이용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필요하나 소장하지 못한 자료의 경우는 장서 수집의 방법이나 타도서관과의 공유를 통한 장서 확충의 방법으로 개발하도록 제시하였다(〈그림 1〉 참고). 최근의 전자적 형태의 장서는 장서관리 원칙이 전무한 상태 혹은 원칙이 무시된 상태로 수집 혹은 접근하도록 제공되고 있다. 인쇄 중심의 장서 확충이 주제 전문지식에 의거한 엄격한 선택 과정을 거쳤다면 최근의 전자정보 장서관리에서는 전자정보의 가격에 우선하는 망라적인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그림 2〉 참고). 또한 이용도 높은 핵심 자료는 도서관이 소장하고 이용도가 낮은 주변 자료는 타도서관과 상호 협력하여 공동 수집하는 전략이 인쇄중심의 장서관리에 적용되었다면, 전자정보의 경우는 이용도가 높은 자료는 컨소시엄과 같은 공동의 제약으로 도입하여 구독하는 상반된 양상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림 1〉 인쇄중심의 장서관리 전략



〈그림 2〉 전자정보의 장서개발 결과

〈표 1〉 인쇄중심의 장서개발과 전자정보의 장서개발 비교

전통적 장서개발	전자정보 장서개발
- 주제 전문지식에 의한 엄격한 선택과정	- 수집의 망라성 및 경제성(가격) 우선
- 이용도 높은 핵심자료 소장 / 이용도 낮은 주변자료 공동 수집	- 이용도 높은 자료의 공동계약
- 정보접근을 보장하는 방법으로서 정보의 소유	- 단명 / 유동적 정보 접근

그리고 전통적인 장서개발에서는 도서관이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반영구적으로 보장하는 장서의 소유 원칙이 적용되었다면 현재의 전자정보의 경우는 구독기간 동안만 접근하는 단명적인 정보 접근과 연속적인 구독 여부에 따라 정보 접근이 유동적인 장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1〉 참고)

실제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해외전자정보의 주제별 현황을 인쇄형태로 구독중인 학술지의 주제별 분포와 비교하여 발표한 결과(한혜영 2004)를 살펴보았다. 〈표 2〉에서는 국내 대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해외학술지의 분야별 분포를 조사하기 위하여 영국

British Library가 제공하는 학술지 총 43,589종을 주제분야별로 세분하고 국내 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학술지 총 34,193종을 주제분야별로 세분하였다. 〈표 2〉의 첫째 행과 두 번째 행의 비교에서는 British Library 해외학술지 종수의 분야별 분포와 국내 대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해외학술지 종수의 분야별 분포가 거의 일치하고 있었다. 즉, 해외에서 출판되는 학술지의 분야별 분포 비율과 적절하게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인쇄형태의 학술지 구독이 이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2〉의 세 번째 행은 국내 대학도서관이 2003년 구독했던 해외전자정보의 분야별 분포 비율이며 이를 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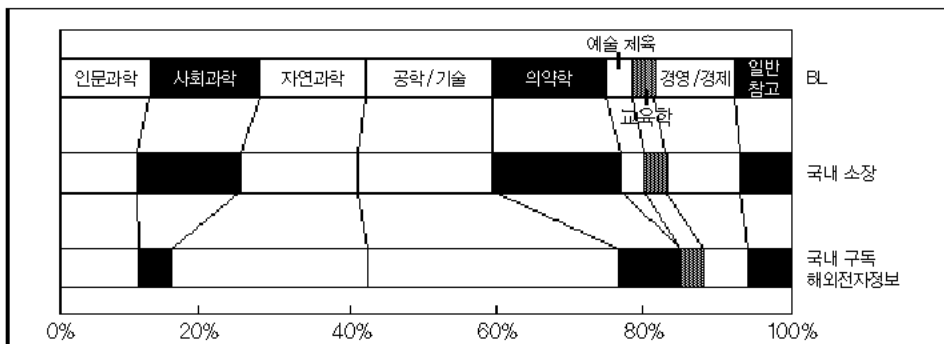
대학도서관 소장 해외학술지의 분야별 분포와 비교하니 분야별로 각각의 비율의 차이가 보였다. 즉, 사회과학, 의학학, 경영/경제, 예술/체육 분야는 인쇄형태 학술지 종수의 분야별 분포에 비해 해외전자정보의 구독 종수 비율이 훨씬 저조하였다(그림 3) 참고). 하지만 자연

과학 및 공학/기술 분야의 경우는 해외전자정보의 분야별 분포 비율이 인쇄형태 학술지 구독 종수 비율보다 월등히 높았다. 해외전자정보 도입시 도서관의 장서개발 정책에 기초하여 주제 분야의 우선 순위가 고려가 되지 않았음이라 추정할 수 있다.

〈표 2〉 국내 대학도서관 소장 인쇄학술지와 해외전자정보 구독 현황 비교

구분	인문 과학	사회 과학	자연 과학	공학/ 기술	의학학	예술 /체육	교육학	경영/ 경제	일반 참고자료
BL 해외학술지의 분야별 비율	12.1	15	14.7	17.3	15.4	3.6	3.1	11.0	7.9
국내 대학도서관 소장 해외학술지의 분야별 비율	10.4	14.2	15.9	18.3	17.8	2.9	3.1	10.0	7.3
2003년 국내 대학도서관 구독 해외전자정보의 분야별 비율	9.7	4.1	24.1	31.0	7.6	-	2.8	5.5	5.5

(단위 : %)



〈그림 3〉 분야별 국내 대학도서관 소장 인쇄학술지 및 해외전자정보 구독 현황 비교

3.2 전자정보 선정 기준

전자정보의 선정 평가 기준에 관하여 적절한 안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 결과를 살펴보았

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2, 29-32)이 발표한 「해외학술DB 선정 및 평가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는 우선 도서관의 수서정책내의 주제별 모델에 따라 주제별로 선정한 후 데이

터베이스 내용에 대한 품질을 데이터베이스 내용 평가모델에 따라 데이터의 품질과 서비스 품질로 구분하여 설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가격 및 구매요건 등을 평가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표 3〉에 제시된 평가항목은 다양한 전자정보를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겠으나 라

이센스 계약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 그 예로서 아카이브, 팩키지 내 지속적인 콘텐츠 제공, 제공사의 신뢰성, 그리고 공정사용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Guenther(2000)는 전자정보를 평가하고 선정하는 기준으로서 Katz의 『Introduction to Reference Work』²⁾에 명시된 목적, 권위,

〈표 3〉 데이터베이스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평가 모델	평가요소	평가항목
내용 평가	포괄성	수록자료의 범위, 수록레코드수, 유형과 시기의 망라성 질의에 대한 응답률
	정확성	데이터의 신뢰성, 데이터 표현의 정확성, 데이터기술의 정확성
	완전성	레토드 구조의 적합성, 데이터 기술의 완전성, 레토드의 고유성
	최신성	현행성, 신속성, 갱신주기, 타임래그
	일관성	레코드 구조의 일관성, 데이터 표현의 일관성, 데이터기술 의 통일성
서비스 평가	검색성	검색속도, 검색방법의 다양성, 출력기능의 다양성, 시소러 스의 유무
	편의성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작업처리의 편의성
	지원성	이용자 지원 및 교육, 도큐멘테이션의 유무, 도움기능의 적절성, 원문제공의 편의성
비용 평가	비용	구입비용, 이용비용
	네트워크/ 하드웨어	접근성, 접속속도, 접속방식
기타	일반적인 요구사항	권위(전문성), 통합성, 유일성, 객관성, 이용자만족도, 데이터 작성지침 준수성 등

범위, 대상 이용자, 비용, 그리고 형태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Guenther의 선정 기준은 라이선스 계약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별 도서관에서 실제 적용하여 활용하기에 유용한 기준이 된다.

(1) 전자자원의 적합성(how well it fits)

선정을 고려중인 전자정보가 도서관의 장서 정책에 정의한 장서의 주제 범위와 심도에 적합한 자원인지를 고려한다. 다양한 전자정보가 존재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대원칙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전자자원의 상품 가치와 콘텐츠 품질
(product and content quality)

선정하고자 하는 전자정보의 품질과 범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특정 내용을 평가하는 것도 반드시 고려한다. 제공되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는지 그리고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제공되는 콘텐츠 범위의 깊이가 각 부분별로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전자저널을 제공하는 경우, 원문, 초록, 목차를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또한 인쇄본과 동일한 전자적인 형태(예: 인쇄저널을 이미지화 하는 경우)로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현재 선정을 고려중인 전자자원 이외 필요하지 않

은 전자자원이 동시에 번들(bundle)로 제공되어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확인한다. 이용자 교육, 온라인 이용강의, 도움말, 시스템과 전자정보 서비스 관리를 위한 문서를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개별 이용자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개인화 기능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3) 기능성(utilization)

컨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외부 콘텐츠와의 상호연계 기능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콘텐츠의 인쇄, 다운로드, 혹은 이메일 전송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출판사 혹은 정보제공사의 정책에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적인 용도로 인쇄와 다운로드는 가능하지만 전자적인 형태의 콘텐츠 재배포가 허용되지 않는 라이선스 항목이 있음을 유의한다. 특히 전자정보 라이선스 조항에는 이러한 부분에 주위하여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4) 형식(formatting)

컨텐츠의 표현 형식이 HTML, Adobe PDF, 기타 유형인지 확인한다. 특정 응용 소프트웨어나 플러그인이 필요한지 확인한다. 콘텐츠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면 인용관리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형식인지 확인한다.

(5) 검색성(searchability)

2) Katz, William A. 1992. *Introduction to Reference Work*. New York: McGraw-Hill.

검색기능이 콘텐츠에 효과적으로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지 확인한다. 모든 수준의 검색도구와 방법이 다양하게 제공되며 이용이 쉬운지 확인한다. 또한 브라우저 혹은 특정 필드를 통한 검색 등 서로 다른 검색 스타일이 제공되는지 확인한다.

(6) 상품 디자인(product design)

전자정보의 디자인은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 이용자의 관점에서 디자인이 잘된 상품이란 직관적으로 이용하기 쉬운 제품이다. 다양한 검색을 통한 정보 이용행태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일관된 화면과 기능이 제공되는지 확인한다. 전자정보는 웹 브라우저의 종류와 버전에 무관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7) 접근성(access)

전자자원을 라이선싱 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접근과 관련된 사항이다. 전자정보의 접근은 대부분 이용자 확인과 인증과정을 거쳐 가능하도록 라이선스 항목에 명시하고 있다. 즉, 적절한 이용(appropriate use)으로 기술된 내용에는 현재 접속하여 이용하려는 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이용자 확인(identification) 절차와 적절한 이용자만을 허가하는 인증(authentication) 절차가 포함된다. 이러한 두 단계의 절차를 통하여 콘텐츠에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login/password 이외 대학의 캠퍼스 IP 범위를 확인하거나 PIN code 등의 방법도 활용되

고 있다. 도서관에서 전자자원을 선정할 때 이러한 콘텐츠에 접근과 보안의 방법이 제시되는지 확인한다. 또한 관리적인 측면에서 도서관이 해야하는 부가 작업은 없는지 확인한다.

(8) 출판사 혹은 정보제공사에 대한 평가 (evaluating the vendor)

전자자원의 경우는 제공되는 콘텐츠와 부가적인 서비스의 평가 이외 이 상품을 제공하는 출판사 혹은 정보제공사의 권위 혹은 평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전자자원을 구독하는 유사한 기관의 참고자료를 출판사 혹은 정보제공사에게 요구하고 전자정보에 대한 공식적인 리뷰도 확인한다. 전자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의 재정 상황과 기관의 안정성을 확인한다. 현재 고려중인 전자자원이 오랜 기간의 역사를 가진 상품인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제품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4. 전자정보 라이선싱

4.1 라이선스 계약 원칙

라이선스 계약의 가장 근본이 되는 원칙으로 1997년 미국도서관협회(ALA: American Library Association)가 제시한 'Principles for Licensing Electronic Resources'가 있다. 이 원칙에서는 15개의 조항을 제시하였다(ALA 1997). 2001년 국제도서관연맹(IFL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이 제시한 ‘Licensing Principles’의 경우는 라이선스 내용을 8개의 부분으로 세분한 후 각 조항을 기술하였다(IFLA 2001). ALA 원칙은 “접근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에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는 도서관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소극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IFLA 원칙은 “쌍방간의 권리 및 책임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도서관에서의 이용권과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원칙을 제시한다(황옥경, 이두영 2004). ALA와 IFLA가 제시한 라이선스 원칙들은 대학도서관에서 해외전자정보를 도입할 때 가장 근간이 되는 지침으로서 활용 가능하다.

1997년 유럽 내 대학도서관은 출판사들이 제시한 전자정보 라이선스 내용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원칙과 정책을 수립하였다. UKB(the Dutch Association of University Libraries, the Royal Library and the Library fo the Royal Dutch Academy of Sciences)와 GBV(Gemeinsamer BibliotheksVerbund: the German Association of Research and University Libraries in North and Middle Germany)가 수립한 이 원칙은 네덜란드와 독일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 대학도서관에서 채택하여 활용중이다. 이 원칙의 주요 요소로서 첫째, 도서관은 학생과 연구자에게 그들의 위치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전자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두 번째, 도서관은 전자정보에 대한 공정사용이 가능토록 해야 하나 인터

넷을 통한 유출은 방지해야 한다. 공인되지 않은 이용자의 접근은 제한한다. 세 번째, 전자저널을 구독할 때 출판사가 도서관의 인쇄저널 구독 중단을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도서관은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 네 번째, 인쇄저널을 구독하지 않고 전자저널 구독만을 희망하는 경우 전자저널의 구독료는 인쇄저널의 구독료보다 훨씬 저렴해야 한다(LIBER 1999).

라이선스의 조항들을 도서관 관점에서 고려하여 살펴보고 성공적인 라이선스 협상을 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다음을 제시한다(Okerson 1996a). 첫째, 도서관이 라이선스 협상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라이선서인 출판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두 번째, 라이선스 협상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며 때로는 몇번에 걸친 반복적 협상이 필요하다. 협상에 임하는 사서는 인내심, 의지력, 그리고 협상을 성공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열망이 필요하다. 세 번째 라이선스 협상과정은 라이선스 관련 모든 고려사항에 대하여 한사람의 의견과 시각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 라이선서인 대학의 이름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 협상에 임해야 한다. 즉, 도서관의 협상 담당자는 도서관 대내외 직원, 수서과, 열람과, 정보처리과, 전산시스템 관련 부서의 사람들과의 협력과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내 정보처리 담당자 혹은 법률전문가와와의 협의도 필요하다. 라이선스 협상을 위해 관련 부서 직원들간의 공식적인 협의가 요구되고 궁극적으로 라이선스 계약

서의 내용에 대하여 대학 전체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용자에게 유용한 전자자원이 존재하는 경우 도서관의 입장에서 라이선스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라이선스의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Okerson 1996b). 첫 번째, 이용과 이용자의 정의는 대학과 도서관 환경에 적절해야 한다. 그 결과 대학의 일상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라이선스 조항들은 법적인 제공자의 책임과 구매자의 책임이 합리적이고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세 번째, 제공자와 도서관은 라이선스 계약서에 명시된 기능과 내용에 대하여 상호 동일하게 이해해야 한다. 네 번째, 제공자가 제시한 구독모델은 명확하여야 하며 구독료는 도서관에서 수용 가능한 금액이어야 한다. 다섯째, 아카이빙 혹은 영구 접근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4.2 라이선싱 고려사항

전자자원은 전통적인 인쇄자원과 달리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다. 라이선스 조항에는 대부분 콘텐츠가 어떻게 이용되어야 하는지 혹은 이용되서는 안되는지, 콘텐츠가 도서관내 접속 혹은 원격 접속이 허용되는지, 이용자가 누구인지 등을 정확하게 기술한다. 라이선스 계약서의 용어들은 법률 혹은 기술적인 용어이므로 라이선서인 출판사와 정보제공사와의 협상을 위해 용어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³⁾. 라이선스 조항에 이용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 여부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고 도서관내 직원의 관리를 요하는 사항들이 도서관에서 수용 가능한지도 확인한다. 하나의 예로서 라이선스 조항은 기존의 인쇄형태의 저작권 하에서 허용되는 이용조건과는 다른 접근 조건을 제시하므로(〈표 4〉 참고)

〈표 4〉 저작권하의 이용조건과 라이선스에 의한 조건 비교

저작권 하에서 허용되는 이용조건	라이선스에 의한 조건
공공에 자료를 대출해줄 수 있는 권리	자료의 '대출'은 라이선스에 정의된 이용자에게만 한정
인용, 발췌할 수 있는 권리	복사 및 비공개 요구사항에 대한 인용 및 발췌의 허가 필요
공정사용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	기관 밖으로 복사본의 배포 제한, 원문복사 서비스 제한
공정사용 원칙에 따른 이용	제한적 사용 요구(예 : 아카데미 혹은 비상업적 목적의 사용)
면대면 교수학습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리	전자적 전송권한 제한으로 원격 교육에 활용 불가

3) 라이선스 계약서에 포함되는 용어 및 문구 해설자료(Yale 대학도서관 작성자료)참고
 - "Definitions of Words and Phrases Commonly Found in Licensing Agreements."
 (<http://www.library.yale.edu/~license/definiti.shtml>).

이러한 차이에 대한 도서관 직원의 이해와 이용자에게 지침 안내가 필요하다.

라이선스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표 5>의 조항들이 포함되며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 단계에서 각 부분별 조항들의 의미와 조항에 따른 결과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고 최종 서명을 한 이후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무효화 할 수 없으며 서비스 혹은 전자정보의 사용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계약서는 법률전문가에 의해 작성되고 해외에서 출판된 전자정보는 영어로 작성된다. 또한 기술적인 용어가 포함되어 도서관 라이

선스 담당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 특히 국내 대학도서관 담당자에게는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기술된 라이선스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전자정보의 판매를 맡은 국내 대행사를 통하여 라이선스 조항에 명시된 문구에 관한 설명을 듣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혹은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계약서를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해외출판사와 정보제공자들은 영문 계약서만을 공식적 문서로 인정하므로 한국어 계약서가 공식적인 것이 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표 5> 해외 전자정보의 일반적 라이선스 계약서 조항

계약서 조항 내용	계약서 조항 내용
- 계약에 참여하는 기관들	- 라이선스(도서관)가 보증해야 하는 사항
- 계약관련 사실의 설명 부분	- 보증체계, 라이선서의 보증사항, 배상 관련 사항
- 계약서의 해설	- 불가항력에 의한 허용 사항(계약 불이행이 허용되는 사항)
- 계약 내용	- 계약내용의 양도에 관한 사항
- 라이선스에서 인정하는 권리	- 계약해제 관련 통보
- 이용제한	-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 계약 기간 및 종료일	- 일정
- 라이선스 자료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접근에 관한 사항	- 서명
- 라이선스 비용(구독료)	

그 외의 고려사항으로서 전자자원이 서비스 될 물리적 위치에 대한 결정 즉, 데이터를 로컬화하여 도서관내 자체 서버에 접속하여 이용하는 서비스 방식을 취할 것인지 혹은 인터

넷을 통한 해외사이트로의 접속 방식을 이용할 것인지를 고려한다. 또한 개별 전자자원별로 이용자 범위를 정의한다. 즉, 대학내 교수, 학생, 직원 등의 대상 이용자와 분관과 분교가

존재하는 경우의 이용 범위, 특정 단과대학만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 전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 외부 도서관 방문자에게도 이용을 허용할 것인지 등을 확인한다. 또한 이용자가 어떠한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지 고려한다. 어떠한 전자정보는 인용, 수정, 데이터의 조작을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라이선서의 요구는 대학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라이선스인 도서관에서 수용 가능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기술적 접근 제한을 요구하는 경우, 도서관이 자체적인 능력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 확인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라이선스 조항의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대학도서관은 전자정보를 도입하여 일정기간 제공 후 재구독 시점에 다음의 사항들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구독을 중단하는 것도 고려한다. 교수 및 학습에서의 이용 촉구에도 불구하고 일정수준 이하의 이용량이 지속될 때, 고품질 혹은 저가의 유사 콘텐츠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 전자정보의 콘텐츠가 변경되거나 부정확하여 지속적인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정보제공사와의 라이선스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콘텐츠의 지속적인 접속에 대한 비용이 자체 가치보다 초과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색인, 이미지, 혹은 전자정보 자체의 문제에 기인한 저급한 서비스 혹은 콘텐츠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JISC 2001). 도서관 담당자는 개별 전자정보별 이용 통계와 이용에 대한 의견 수렴을 수행하고 우수한 대체 상품의 발굴

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전자정보의 구독 단가는 인쇄형태의 자료보다 고가이므로 투자 대비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생성하여 전자정보에 대한 효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대학도서관의 예산을 절감하거나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5. 결론

인쇄환경에서의 도서관은 장서 구입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무제한 접속과 영구 이용을 지원한다. 이와 달리 전자환경에서 도서관은 대부분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에 전자정보에 접근하고 특정 조건하의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정보의 접근은 라이선스를 통하여 가능하며 이러한 라이선스는 공식적인 이용허가권을 취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출판사 혹은 정보제공사가 라이선스 계약서를 도서관에 제시하는 것은 특정 전자정보의 이용 가능한 조건들을 협상하고자 제안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전자정보의 일반적인 선정 및 라이선싱 절차는 다양한 전자정보 조사, 출판사/제공사와 접촉, 반복적 협상과 자문, 선정 기준에 준거한 위원회의 승인, 계약조건 검토 및 위원회 승인, 그리고 계약서에 날인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서비스가 개시되어 이용이 이루어지고, 전자정보에 대한 다양한 홍보, 이용교육 제공,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 수렴과 발표과정을

거친 후 재계약 혹은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본 논고에서는 전자정보의 선정 기준과 라이선싱 관련 원칙 및 고려사항에 대하여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본 논고에서 정리하여 제시한 사항들이 국내 대학도서관의 해외 전자정보 담당자 업무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도서관에서 전자정보를 확충하는 이유는 학술연구자들이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며,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실제로 전자정보의 이용을 통한 연구시간 절감과 다양한 다수 정보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확인하였다. 도서관 담당자는 도서관 장서의 효용성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인쇄자료는 물론 전자정보 중 우수한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대학도서관의 장서 구성이 우수하고 전자적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 대학도서관의 전자정보 이용량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자정보의 유용성 증진을 위하여 출판사의 라이선스 조건 중 복사 관련 항목에 대하여 도서관측의 명확하고 일관된 지침이 필요하다. 현재의 라이선스에 명시된 공정사용에 대한 원칙과 이와 관련한 사항들은 이용을 제한하도록 기술되어 있으므로 비영리적인 목적, 교수·학습의 목적, 그리고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전자정보의 라이선스 조항 중 접근에 대한 영구 권한 추가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한 아카이브 해결 방안도 제시되어야 한다. 특정 전자저널 패키지 혹은 저널 어그리게이터 패키지

내의 저널 콘텐츠는 도서관과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명확하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도서관이 소장한 학술지의 종수가 대학의 평판에 주요 요인이 되므로 국내 대학도서관은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용성과 유용성을 증진할 수 있는 해외전자정보를 확충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선정하여 도입한 전자정보는 대학 소속 이용자들의 연구 활동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입 이후의 전자정보에 대한 운영 및 관리 부분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참고문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2. 『해외학술DB 선정 및 평가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 한혜영. 2004. 국내 대학도서관의 해외전자정보 구독 현황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 35(1): 71-96.
- 황옥경, 이두영. 2004. 전자저널의 효율적인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연구. 『情報管理學會誌』, 21(1): 1-22.
- ALA. 1997. "Principles for Licensing Electronic Resources." Final Draft, [online], [cited 2003.11.10]. <<http://www.arl.org/scomm/licensing/principles.html>>.
- Dougherty, Richard M. 1988. A Conceptual Framework for

- Organizing Resource Sharing and Shared Collection Development Programs.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14(5): 290-291.
- Guenther, Kim, 2000. Building Digital Libraries: Making Smart Licensing Decisions. *Computers in Libraries*. [online]. [cited 2004.5.1]. <<http://www.infotoday.com/cilmag/jun00/guenther.htm>>.
- IFLANET, 2001. "Licensing Principles." [online]. [cited 2003.5.1]. <<http://www.ifla.org/V/ebpb/copy.htm>>.
- JISC, 2001.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for the DNER." JISC's Committee on Electronic Information(JECI). [online]. [cited 2004.1.5]. <<http://www.jisc.ac.uk/dner/collections/strategy.htm>>.
- LIBER, 1999. "LIBER Licensing Principles for Electronic Information." [online]. [cited 2003. 3. 3]. <<http://www.kb.dk/guests/intl/liber/news/981116.htm>>.
- Okerson, Ann, 1996a. "Licensing Perspectives: The Library View." ARL/CNI Licensing Symposium, San Francisco, December 8, 1996. [online]. [cited 2003. 3. 3]. <http://www.library.yale.edu/~okerson/cni_license.html>.
- Okerson, Ann, 1996b. "What Academic Libraries Need in Electronic Content Licenses." Presentation to the STM Library Relations Committee STM Annual General Meeting, October 1, 1996. [online]. [cited 2003. 3. 3]. <<http://www.library.yale.edu/~okerson/stm.html>>.